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은 물가상승 우려 기준금리 인상

- 한은은 새해에도 물가상승의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함.
 - 한은 금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작년 11월 0.25%p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2개월만에 연 2.50%에서 2.75%로 기준금리를 인상함.
 - 이는 새해 초부터 농수산물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임.
 - 금융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'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한 점진적 인상'을 예상했으나 한은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즉각적 인상을 시행함.
 - 이번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가게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.
-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적 미시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'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'도 발표함.
 -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하고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운용되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힘.
 -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.
 - 5년 민간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는 전세대책과 사립대 등록금을 3% 미만으로 억제하는 교육물가 대책도 아울러 제시됨.
- 이번 한은의 금리인상은 정부의 물가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종합적 미시대책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대책이 완성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임.
 -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
(통화정책방향 등, 한은 등, 1/13)